

용산참사, 설날 이어 추석에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설날에도 입었던 상복을 추석에도 벗지 못하는 유가족들. 9월 14일 부터 25일까지, 2주 간의 전국 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유가족들이, 범국민추모대회(9월 26일) 무대에 올라, 8개월이 넘은 용산참사 문제를 추석 전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하였다.

추석에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차가 많아서 길이 막혀도 고향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막상 고향집 어귀에 접어들면 근심을 내려놓는 추석입니다. 그러나 추석이어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산에서 차례도 지내지 못하고 8개월 넘게 상식을 올리고 있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입니다. 그리고 8개월 넘게 차가운 냉동고에 계신 철거민 열사들입니다.

추석 민심을 잡고자, 친 서민과 중도실용을 내세워 내민 이명박식 개각이라는 회심의 카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임 총리를 비롯해 장관 어느 누구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 불법전매 등 비리 백화점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큰 흠결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우리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 양심을 기대

하기란 난망해 보입니다.

저들만을 위한 개발, 쫓겨나는 우리 한강르네상스와 용산국제업무단지 그리고 서울을 상징하는 100층이 넘는 랜드마크빌딩 조감도가 빛나는 용산역일대가 개발되면서, 땅값은 1억에 가깝고 새로 올라가는 아파트는 평당 5천만 원을 육박합니다. 이를 디딤돌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에 나설 것이고 시공자인 삼성물산은 약 1조4천억 원의 개발사업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한 동네서 20년을 바둥거리며 가게 일귀 하나 둘 단골 모아 조금씩 빚 갚고 살아오던 이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주비 몇 푼에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밥숟가락이자 살아온 궤적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항하는 그들에게는 용역의 욕설과 폭행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소박합니다. 개발이

익에 비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요구로서 개발 후 살아갈 수 있는 임대상가와 공사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시상가를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박하지만 절박한 요구가 죽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죽어서까지 그들은 도심 테러리스트가 되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수사기록 3천 쪽을 내놓지 않는 검찰에 의해, 살인자로 기소되어 일방적인 재판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철저히 부동산투기꾼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산참사로 인해 상가 세입자의 권리가 논란이 되는 것조차 막아야 했고, 그리하여 그들은 조합과 유족이라는 '사인(私人)간의 관계'이니 유족 보상금 명목의 현찰 몇 푼으로 합의하라고 강변해왔습니다. 참사가 난 직후 임시상가와 임대상가를 보장하는 '순환식 개발'을 하겠다는 한

나라당 대변인 발표는 다급해서 나온 허언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말과 눈물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산참사 해결하라

잔인한 정권은 용산참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절박함에 외치는 저항들을 어떻게 억압 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며 고립, 고사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회, 삼보일배, 1인 시위마저 원천봉쇄하고 연행하더라도 용산참사를 해결하라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과 용산범대위는 추석 전에 용산참사를 해결하라며 전국을 돌면서 호소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호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는 탄압과 억압이 아닌, 혹은 형식적인 말과 가식의 눈물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산참사 문제 해결이라는 전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름달에 그들만의 소원을

용산역 앞 대로변 불에 그을린 남일당 건물 외벽에는 걸게그림과 만장이 늘어져 있고 다섯 분의 영정이 모셔진 분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석을 지내야 하는 유족들은 이번 추석 보름달을 보면서 여느 사람들과는 달리 부디 이제는 남편을,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장례지낼 것을 소원이라고 빌 것입니다.

눈물로 추석을 보내더라도 이제 고인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상복을 벗을 수 있도록, 용산4구역 철거민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의 힘으로 용산참사 반드시 해결합시다.



용산 철거민 재판, 검찰발표와 다르다 경찰특공대 “화염병 보지 못했다” 진술 반복 감식전문가 “화재 원인·발화지점 특정 불가”



검찰 주장과 다른 진술과 의혹들

검찰의 수사기록 미공개 등 공정 재판방해 가운데서,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기존 검찰의 주장과 다른 진술들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5일 있었던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경찰의 채증 동영상의 고의 누락 및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6명이 촬영한 영상에는 대부분이 불길이 확산되는 시간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소리가 나오지 않아, 고의 누락 및 조작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소방·감식 전문가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들은 “발화 원인을 화염병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발화 지점도 추론하기 어렵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망루 내부 4층에서 3층 계단에 던진 화염병이 발화 원인’이라는 주장과 다른 내용들입니다.

전문가, 경찰특공대 투입은 “위험한 결정”,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장 목격 증인으로 나온 용산 소방공무원은 “시위대가 옥상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진술은, “실제 불을 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 구급차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과민방응 이었”다고 자신의 진술을 반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방공무원(16년 근무)은 변호인의 당시 상황에서 특공대 진압에 대한 질문에 “위험한 결정이다”, “그런 상황은 들어가야 말아야 한다”고 답변 하여, 경찰의 무리한 진압 작전이었음을 진술 했습니다.

경찰특공대, 진술 반복 “안 본 부분도 봤다는 식으로 써”, “적개심 때문에...”

24일 재판에서는 당시 투입된 경찰특공대의 진술 반복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특공대원 6명은 모두 “발화원인으로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 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발화원인을 “추측으로 화염병”이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반복하였습니다. 특공대 1제대장도 “농성자가 시너를 부었다고 입력돼 있어 머릿속에 정리된 것을 가상

해서 진술했다. 본 건이 아닌 생각이다”라면서 “직원 장례식도 있고 해서 안 본 부분도 봤다는 식으로 썼다”고 진술조서 반복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 죽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던 특공대 2제대 팀장은 “지금은 다 피하라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때는 적개심을 느껴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반복하였습니다.

경찰특공대 망루 내 인화물질 양도 모르고 작전

또한 특공대원들과 망루 진압에 투입된 1제대장은 망루 내에 시너와 인화물질의 양이 정확히 얼마인지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하고 출동했고, 심지어 화재가 나기 바로 직전인 2차 진압 당시 소화기는 대부분 소진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애초 동원하기로 한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작전을 일부 변경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공대의 작전 준비를 언제 했는지와 관련해서, 1제대장은 “19일 오전 8시 20분에 특공대 참모회의에서 특공대장에게 출동하라는 전화가 왔지만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이 “오산 세교 지구는 54일 농성 후에 진압을 해 화염병도 다 소진하고 농성을 이탈한 사람들을 통해 내부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다. 이처럼 내부를 파악할 작전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시간이 많아 세밀한 파악을 하면 좋지만 명령이 떨어져서 검거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공대원, 시너로 환각상태에서 작전 강행

28일 재판에서는, 특공대원들은 “1차 진입 때는 시너 냄새가 별로 안 났으나 2차 진입 때는 환각 상태 였다”, “마약을 하면 그런 느낌이 나겠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이 그런 상황에서도 “빨리 진압하라고 해서 간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지휘관이면 그 상황에서 보류하겠지만, 지휘관은 밖에 있어 상황을 몰라서 그런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철거민이 아닌, 책임자가 법정에 서야

이처럼 검찰이 기존에 발표한 공소장의 내용과 다른 진술들과 반복이, 검찰측 증인들에게 마저 쏟아져 나오고,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진압 명령의 진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제출 수사기록 3천 쪽에 담겨있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검찰이 감추는 진실을 밝히고, 생존한 철거민들이 아닌 살인진압의 지휘 책임자들이 법정에 서야 합니다.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는 용산으로 와 유족 앞에 사죄하라!

양파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벗길수록 의혹과 비리만 드러났던 인사청문회 과정을 생각한다면 총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 총리는 국민의 58%가 반대하고 단 1명의 야당원의 찬성도 없이 임명된 반쪽 총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생을 살피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진심과 정성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그 첫걸음이 용산참사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더 어떤 말이 필요한가?

우리는 지난 9월3일 정운찬 서울대교수가 총리에 내정되자마자 성명을 발표하고 용산으로 오라 하였다. 9월 8일 우리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용산참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용산 참사현장에 오라 하였다.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용산참사의 해결을 위해 용산에 오라 하였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거할 때다.

우리는 정운찬 총리가 용산으로 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용산참사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정 총리는 용산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둘째, 고인들의 염원이었던 철거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용산4구역 철거민들에 대한 임시시장과 임대상가 보장 방안을 제시하라!

셋째,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살인진압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라!

정 총리는 취임기자회견에서 정운찬 내각의 4대원칙으로 예방행정, 현장행정, 피부행정, 내실행정을 꼽았다고 한다. 용산참사의 해결이야말로 4대원칙의 시금석이다. 계속 방치해서 일이 더 벌어지기 전에(예방) 용산으로 와서(현장),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피부)를 하여 용산참사를 해결(내실)하라.

용산으로 오라. 그리고 민생총리로서 새출발하라!

2009년 9월 30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 정운찬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용산 유가족 권명숙님이, 정부의 외면과 탄압을 증언하고 있다.

정운찬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을 통해, 총리가 되면 우선적으로 용산을 방문해서, 유족들을 만나고,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 주십시오 야속하게도,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 故 한대성 열사의 부인 신숙자님이 용산참사 현장 남일당에서 분향소에 놓인 초를 정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8개월이 넘도록 아직 망자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지난 설 날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차례를 지내지 못하고, 상식을 올리야 한다.

야속하게도,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설날 직전 남편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남일당에서, 이번에는 추석을 맞아야 하다니, 끔찍합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추석 전에 고인들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소망은 정녕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인가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돌아가신 분에게 따뜻한 차례상을 올리겠다는 희망은 과욕이었나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패륜아'가 되어 감방에서 추석을 나는 자식을 보는 어미의 마음은 천근 만근입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춘기 나이에 '테러리스트의 아들'이라는 손가락질 받는 자식을 보는 어미의 가슴은 산산조각입니다.

추석을 쇠고 나면 입대해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 치를 때

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해서 일주일 더 미뤘는데, 그날이 10월 13일입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어미의 심정도 심정이지만, 제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군대 갈 자식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부모 마음, 자식을 길러줘야 안다고 하지요. 저희도 자식인지라 추석 전 장례를 치른다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까 했는데, 저희가 이려고 있으니 도리어 시대식구, 친정식구 모두 용산에 와서 추석을 원한다고 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식 된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참 지독한 정부입니다.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다섯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아직도 묵묵부답이랍니다. 죄 없는 우리들에게 아내 노



▲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3보 1배'마저도, 경찰은 가로막고, 연행하였다(9월 1일 대한문 앞). 지난 8개월간 유가족들은 단 한 순간도 경찰의 감시와 탄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릇, 어미 노릇, 자식된 도리 못하게 해 놓고서 자기들은 고향 찾고 부모 찾다니요. 이려고도 한 나라를 책임지는 위정자입니까. 이려고도 국민들을 보살피는 나라님입니까.

정운찬 총리님,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물마저 그렇거렸습시다. 너무 늦은 만큼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고고한 학자이셨던 만큼 비리 덮으려고 유가족을 이용하는 그런 분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달라지는데', 그런 분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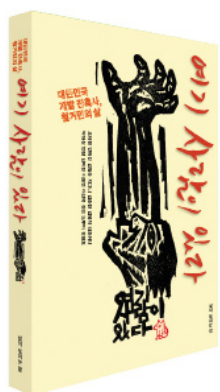
용산에 오십시오. 저희는 국민통합이니 서민경제니 하는 어려운 말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용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 어떤 말을 앞에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모조리 거짓말이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님, 조문 오시면 저희 유가족이 따듯이 맞이하겠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고인을 추모해 주십시오. 고인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 선량한 국민이었다는 한 말씀 남겨 주십시오. 고인들이 생전에 바라셨던 대로 집없고 돈없는 철거민들이 살아갈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희 유가족들은 눈물을 거두고 고인들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운찬 총리님, 추석에도 상복을 벗지 못할 것 같지만, 곧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용산에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2009년 9월 30일
용산 참사 유가족 일동

용산참사 관련 구술집과 DVD를 판매합니다



[구술집] 대한민국 개발 잔혹사, 철거민의 삶

여기 사랑이 있다

삶이 보이는 창 간행

개발에 저항한 '난장이'들의 삶, 일상, 투쟁을 받아 적다

* 판매가 : 용산 현장판매 및 단체주문 1만원 (서점가 13,000원)
* 구입문의 : 용산범대위 02) 795-1444
mbout@jinbo.net

DVD 2009 인권영화제 개막작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두번째 이야기]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살아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2009년 1월 대한민국 수도서울 용산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으로, 떠날 수 없는,
남겨진 이들의 삶을 담았다.

* 상영시간 : 60분
* 판매가 : 1만원
* 구입문의 : 용산범대위 02) 795-1444
mbout@jinbo.net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에 함께 합시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수사기록은 은폐

검찰은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철거민 만을 기소하여 '경찰을 죽인 죄(특공방 치사)'를 씌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에서 살아난, 생존자들이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핵심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법원 명령까지 거부하는 사법질서 파괴를 감행하면서까지 감추는 걸까요? 은폐한 수사기록 3천 쪽에는 검색기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경찰특공대 등 진압경찰 수뇌부와 진압작전을 같이 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진술이 포함되어, 당시 상황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기록임에도, 이를 은폐함으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기소하고,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편파, 왜곡, 은폐수사로 일관하고 재판과정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재판, 첫 단추부터 잘못 꿴어진 재판을 통해 철거민들에게만 유죄가 판결

나는 재판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제도적인 방식이지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법정에서는 가해자인 경찰, 검찰을 비롯해서 용산구청, 서울시, 정부관계자, 철거용역업체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기소하여 그 죄를 묻고자 합니다. 국민이 기소인이 되고, 배심원이 되고, 재판부가 되어서 과연 용산참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들만이 아니라 건설업자들과 땅투기꾼들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재개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입법부, 행정부의 문제도 짚으려 합니다. 전세대란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 지금도 강제철거로 쫓겨나는 철거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진단해보자는 것입니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피어라

1만 명의 국민들이 기소인으로 참여하고, 50여 명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9명의 재판부로 구성되는 재판은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8

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에 기소인과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역사적인 사건의 증인이 되고, 심판자가 됩니다.

용산 국민법정 참여하기

· 1만 기소인 참여

용산 참사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기소장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mbout.jinbo.net/court 나 거리 캠페인을 통해 참여)

· 배심원 참여

10월 18일 재판정에 참석하여 배심원으로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전화, 메일 court@jinbo.net 로 신청문의 해 주세요)

· 국민법정 참여

10월 18일 국민법정에 참석하고, 국민법정을 많이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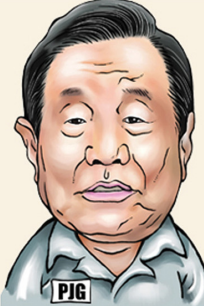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용산철거민사망사건 책임자를 기소한다!

2009년 10월 18일(일) 오후1시

용산 국민법정

용산철거민사망사건의 주범들(기소 대상자)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수사기록 3천쪽 고불친 죄	오세훈  현 서울시장 강제퇴거 나몰라라 죄	이명박  현 대통령 막개발에 앞장서 서민들의 집과 삶을 빼앗은 죄	박장규  현 용산구청장 떼잡이 망발 입 놀린 죄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특공대 남발하고 무전기 꺼놓은 죄	조합, 건설사, 용역업체  개발이익 눈멀어 철거민 궁지에 몰은 죄
---	--	--	---	---	---

※ 장소는 추후에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용산국민법정 준비위원회

홈페이지 <http://mbout.jinbo.net/court> | 이메일 court@jinbo.net 전화 02-310-9076